

과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방법론

리 금 옥

우리 당은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내놓고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자면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적방법론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기본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15권 증보판 489페이지)

과학연구의 주체적방법론은 사람중심의 과학연구방법론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는 사람이며 따라서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철저히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들을 보고 대하는 주체적방법론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한다. 사람중심의 과학연구방법론이라는데 주체적방법론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이 있다.

과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방법론은 무엇보다먼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할수 있도록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과학연구활동을 벌리는가 하는것이다.

과학연구의 목적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내세우는가에 따라 과학연구활동이 무엇을 위하여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되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는것이 좌우된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소수 착취계급에게 장악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과

학이 근로자들을 억압착취하는 수단으로, 치부의 수단으로 리용되며 자본가계급의 리익에 따라 과학연구의 목적이 규정된다.

그러나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과학연구의 근본목적이 전적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규정된다.

과학연구의 근본목적은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은 사람들이 내세우는 모든 활동목적의 내용과 수준, 과학성과 정당성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설정된 목적만이 가장 혁신적이고 합리적인것으로, 사람의 모든 활동이 자기의 자주적본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참다운것으로 된다.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떠나 순수 실무적인 타산에만 기초하여 목적이 규정되는 경우 그것은 결코 사람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옳바로 이바지할수 없다.

과학연구활동이 인간의 본성에 맞는것으로 되자면 반드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해나가는 원칙에서 그 목적이 규정되어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과학적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립장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과학연구사업을 벌려나가야 하며 제기되는 모든 과학적문제들을 자기의 독자적인 주견과 판단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다시말하여 과학연구방법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는데 있다.

우리 나라 혁명에 복무하지 않고 우리 인민의 리익에 이바지하지 않는 과학기술은 그것이 아무리 발전되고 현대적인것이라 하여도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언제나 우리 나라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주체적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인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한다는것은 곧 자기 수령의 혁명사상,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데로 과학연구사업을 지향시킨다는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리익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으며 과학기술발전의 방향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사고와 실천활동을 벌려나가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실현에 복종시켜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해나가는 과학연구의 주체적방법론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주체적방법론은 다음으로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발양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

건과 실정에 맞게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는것이다.

과학연구에서 견지하여야 할 가장 위력한 방법의 하나는 우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에 의거하는것이다.

과학발전의 원천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있다. 광범한 대중의 창조적지혜가 얼마나 발동되는가에 따라 과학연구사업의 성과가 좌우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킬 때에만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기적과 혁신이 이룩되게 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양시키는 가장 우월한 방법은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며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개인은 아무리 총명하다 하더라도 인류가 이룩해놓은 과학기술적성과의 극히 제한된 부분만을 체현할수 있다. 개별적사람들이 지니고있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를 전면적으로 인식하고 개조해나갈수 없다. 사람은 힘과 지혜를 합치고 인류가 력사적으로 축적해놓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리용할 때 비로소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변혁해나가는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동지적협조를 강화하며 과학연구성과와 경험을 허심하게 교환하고 널리 일반화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주의는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통하여 실현된다.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강화하여야 지금 있는 과

학기술력량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연구대상의 규모와 해결하여야 할 문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널리 조직하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집체적힘에 의거하여 제기된 연구과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제일 큰 장애물은 본위주의이다. 본위주의는 과학연구사업에서 금물이다. 과학의 모든 분과들과 연구분야들이 유기적으로 긴밀히 련관되어있는 조건에서 본위주의를 없애지 않고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세계적범위에서 과학기술적협조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오늘 한 나라안에서 과학연구사업을 하면서 본위주의울타리를 치는것은 시대착오이다. 과학연구사업에서는 본위주의울타리를 마스고 과학자, 기술자호상간, 과학연구기관호상간 그리고 과학연구기관과 대학들사이의 련계와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시키자면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배격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는 죽음과 같다.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가지면 창조성이 마비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현실을 옳게 인식할수 없으며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건설의 과학적인 방도를 찾아낼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과 기술에 대하여 환상적으로 대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마치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못한것처럼 생각하면서 자본주의나라의 발전된 과학기

술을 환상적으로 대하는것은 큰 잘못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추동력은 인민대중의 창조력이다.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높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경제적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한다면 사회주의가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자본주의를 능히 압도할수 있다.

과학연구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위력한 방법의 하나는 또한 과학연구사업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진행하는것이다.

과학연구사업은 세계의 발전법칙을 밝히고 자연을 인간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변혁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내는 활동으로서 높은 창조성을 요구한다.

나라마다 자연지리적조건이 다르고 같은 자연법칙이라도 자연조건과 환경이 다르면 그 표현형태와 작용방식이 달라지는것만큼 과학연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반드시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발을 붙이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해나가자면 과학연구와 생산실천을 결합시켜야 한다.

과학연구와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은 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보장하고 기술혁명수행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은 사회적생산과정에서 불가분리적으로 련결되고 호상작용하는 고리들이다. 생산실천은 과학기술발전의 원천이고 추동력이며 과학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최고기준이다. 생산실천과 떨어진 과학기술은 발전할수 없으며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과학연구사업은 생산실천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혁명과 건설에서 절실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푸는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으며 연구성과들이 기술혁명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크게 은을 낼수 있다.

이로부터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실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연구성과를 생산에 도입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자면 세계선진과학기술을 우리 식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야 한다.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과학기술은 인류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집대성한 귀중한 창조물이며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세계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세계적인 발전실태를 알수 없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없다.

다른 나라의 발전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것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 사업과 모순되지 않는다.

세계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우리의 과학기술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자력갱생의 원칙도 더 잘 관철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여야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제때에 알수 있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많은 시간과 로력, 자금을 절약할수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는 철저히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원칙에서 하여야 한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그들의 창조적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과학연구사업을 창조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주체적방법론을 확립하였다.

과학연구의 주체적방법론이 확립됨으로써 우리의 과학을 명실공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복무하는 과학,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과학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